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으로 건설산업 변화 이끌어야

–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업계 자정 활동의 평가와 향후 방향 –

김영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dkim@cerik.re.kr

불공정 경쟁 행위와 건설산업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입찰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추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입찰 담합 등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경제적 피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피해 중에서도 주로 소비자 등 수요자 측면의 피해가 크게 강조되어 왔다. 공정한 경쟁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비해 불공정 행위로 인해 책정된 가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욱 큰 피해라는 관점이다. 특히, 정부 조달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유, 무형의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 경쟁 행위는 산업, 더 가까이는 행위를 하는 주

체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는 산업 자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 먼저, 건설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산업의 혁신 및 건설 기술 발전의 유인을 약화시키게 된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및 기술 혁신 노력의 여지를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잃게 된다. 또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결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그대로 건설업계의 피해로 돌아온다.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건설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해 왔고,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건설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경쟁 행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특집 건설시장 공정 경쟁, 어떻게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자정 활동

일반적으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는 시장 변화가 심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된다.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업 부진을 불공정 경쟁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의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 등 잇따른 대형 건설사업의 입찰 담합 사건들로 인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져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인 만큼 이러한 입찰 담합 사건은 그 파장도 크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주요한 경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의 근절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입찰 담합 사건은 어려운 시장 환경과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건설업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1월, 건설업체의 수주·영업 실무자들과 연구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개선 TFT'를 구성하고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도입·운영,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S건설의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조성결의대회' 등 개별 건설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들

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의 윤리경영 및 CP 등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계 내부의 자정 활동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2009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산업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의 '건설산업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다.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단체들은 윤리경영 매뉴얼 보급, 윤리경영 자가 진단 모델 및 사회적 책임지수 개발 보급 등 꾸준히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개별 건설업체들도 2000년대 중반부터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담당 조직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가 하면 내부 감사 제도 등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과 윤리경영 확산 노력은 대형 업체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업체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이러한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입찰 담합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 건설업계 자정 활동의 중장기적 지속성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건설업계 자정 활동은 외부 홍보 목적에 치중되고 단편적인 활동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다.

둘째, 건설산업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 및 국민 등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건설의 기획, 실행 및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랐지만 그동안의 자정 활동은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셋째로, 건설업계의 자정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은 시장의 여건과 제도적 환경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그동안의 건설산업 자정 활동 환경을 보면, 투명하고 윤리적인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일시적인 활동에 그쳐왔다.

자정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주체인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자정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건설업계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들이 따라야 한다.

첫째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정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정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단계

에서 다양한 계층 및 채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닌 내부 경영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법성 등을 확보하는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건설업계 자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품질과 기술이 바탕이 된 우수한 건설 시설물이 생산, 공급되는 시장이 조성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건설업체가 우대받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수요자인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란 건설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제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의미한다.

셋째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의 시각에서 건설산업은 부정적 이미지를 키워 왔다. 따라서 건설업계 자정 활동이 단기간에 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건설업계의 자정 활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범건설업계 차원의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최근의 입찰 담합 사건은 침체된 건설경기와 더불어 건설산업에는 큰 시련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있어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나서서 추진하는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활동들이 정착되어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성숙한 건설 문화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CERIK

